

‘EBS 수능’ 너무 비비 꼬았다

채점결과 발표 수험생들 허탈... 사교육 성행 역효과 우려

표준점수 최고점 언어 6·수리 가 11·수리 나 5·외국어 2점 높아져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EBS 교재 연계율이 70% 가량 높아졌지만 지금까지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돼 EBS 교재 연계 효과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BS 연계 문제가 올해처럼 변형돼 어렵게 출제되면 난이도 상승에 따른 별도의 EBS 문제풀이, 심화학습을 위한 사교육 성행 등 학습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수능을 계기로 EBS 연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수능 채점 결과에 따르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언어 140점, 수리 가형 153점, 수리 나형 147점, 외국어 142점으로 작년 수능보다는 각각 6점, 11점, 5점, 2점 높아졌다. 또 만점자도 수리

가형이 역대 최소인 35명에 그치는 등 대부분 확 줄었다.

김성열 교육과정평가원장은 이날 “작년보다 어려웠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내년에는 학생들이 비교적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출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날 채점결과가 발표되자 EBS와 연계해 출제하겠다는 교육당국을 믿었던 교사와 수험생, 학부모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

광주의 한 고교 교사는 “교재 연계율이 70%일 경우, 액면 그대로라면 EBS 교재를 충실히 학습한 학생은 영역별 70점 정도는 무난히 맞아야 하나 시험이 어렵게 출제돼 70점이면 1등급을 받는 과목도 있다”며 “내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EBS교재를 공부해야 할지, 별도 심화학습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EBS 연계 출제에 대한 수험생의 불신 때문에 내년엔 EBS 교재를 멀리했던 학생들이 수험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일선 학교에서는 EBS 문제풀이를 위한 사교육이 성행하는 역효과가 나타나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심층학습을 하지 않고 EBS 문제 풀이만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결국 사교육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는 인식도 퍼지게 되고 공들여 내놓은 EBS 연계 정책이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수험생들의 허탈감, 배신감을 느끼고 사교육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 목표도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야 한다”면서 “이번 수능을 반면교사로 삼아 EBS 연계 정책을 재검토하고 학교 수업을 충실히 들어야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의 한 고교 교사는 “정부가 EBS 연계 방침을 밝혔을 때부터 예견됐던 문제”라며 “시험을 출제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비율을 맞추기 위해 억지로 연계를 하다 보면 문항을 자주 꼬게 되고 결국 평가 취지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 김모(47)씨는 “올해 수능에서 EBS 교재로 공부하고 강의를 충분히 들은 수험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있었나”며 “교육당국이 사교육을 잡기 위해 수능-EBS 연계 정책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사실 상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겨울에... 소아 장염 ‘비상’

광주, 병원마다 환자 30% 이상 급증

고열과 구토, 심한 설사 증세를 보이는 어린이 장염이 유행하고 있다.

7일 광주지역 소아전문 병·의원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감기와 설사 등 바이러스 성 장염 증상을 호소하는 소아 환자가 평소보다 늘고 있다.

광산구 윤남동 미래아동병원엔 이달 들어 장염증세 환자가 늘기 시작해 전체 환자 중 50% 가량이 설사·구토 등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장염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평상시에 비해 30%가 증가한 수치로 환자들은 진료를 받기 위해 만나질 이상 대기해야 할 정도다.

남구 양림동 기독교병원 소아과는 2주 전부터 바이러스 성 장염으로 병원을 찾은 소아 환자가 외래환자 중 20~30% 증가했으며 야간 응급실에 장염으로만 30명 이상이 찾는 정도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구 금호동 우리아동소아청소년 병원도 거의 앞뎀 장염 환자가 지난 주부터 10명 중 3명 꼴로 늘어 환자

대기실을 채우고 있다.

이와 함께 겨울철 5세 미만의 영유아들에게 구토와 설사 등 장염증세를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도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감기 증세에 구토와 설사 증세를 동반하는 로타바이러스 소아 장염의 경우 12월부터 환자가 늘기 시작해 초봄인 2~3월에 감염이 가장 활발해진다. 로타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매우 강해 호흡기 등을 통해 침투해 감염되며 특히 생후 6~24개월의 영·유아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김령 기독교병원 소아과 의사는 “급격한 날씨 변화와 보호자의 음식물 대처방법 잘못 등으로 겨울철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들은 쉽게 장염에 걸릴 수 있다”며 “장염은 구토·설사 등의 분비물과 공기로 전염되기 때문에 손가락 사이와 손톱까지 비누로 깨끗이 씻으면 50% 이상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나원침 (8190) 김장두

우리국민들...담배 소비줄었다

과대정부 보안...덜따박한 모양

진짜...뭘몰러

국민생명...재산도 못지켜주는 나라에서 몸이라도 성해야지

변호사 시험 합격률

로스쿨 정원 75%로

법무부는 2012년 처음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입학정원의 75%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13년 이후 합격자 수와 합격률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연합뉴스

여고생에 영상전화 걸어 음란행위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또래 여고생에게 영상

전화를 걸어 음란행위를 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달미.

○영광경찰에 따르면 서모(18·고교 2년)군은 지난 9월 중순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강모(17·고교 1년)양에게 영상전화를 건 뒤 30초간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비추는 등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강양에게 전화를 걸어 ‘뭇뎀 짓’을 했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서군은 자신이 누구인지 감추기 위해 발신자표시를 제한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강양에게 영상전화를 걸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에서 “호기심에 장난한 것인데 죄가 되는 줄 몰랐다”며 뒤늦게 후회.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자원봉사는 즐겁게”

7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0 광주시 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이 부대 행사로 열린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에서 밝은 웃음을 자아내며 강사의 율동을 따라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구제역 안동→예천→영양 확산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예천으로 확산된데 이어 7일에는 경북 영양군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로써 지난달 29일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방역망을 뚫고 인근 지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여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5일 구제역이 발생한 예천 한우농가는 초기 구제역 발생지로부터 남서쪽으로 21km나 떨어진 ‘관리지역’(20km 이내)의 지역이고, 영양군 한우농가 역시 12.4km 떨어진 곳으로 ‘경계지역’(10km 이내)을 벗어난 곳이다.

/연합뉴스

광주댐 변사체 신원확인

가출 40대 자살한 듯

지난 5일 광주댐에서 돌멩이와 약 분지가 든 배낭을 메고 숨진 채 발견된 남성(광주일보 12월 6일 6면)의 신원이 확인됐다.

7일 담양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10월 23일 가출한 류모(41·광주

시 서구 쌍촌동)인 것으로 파악됐다.

류씨는 가출 직후인 지난달 11일 “내 흔적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2년 후에 사망 신고를 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아내에게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류씨는 10여년 전 담양 교통사고로 무릎 고관절 수술을 두 차례 받는 등 후유증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기자 gilee@kwangju.co.kr

민주 광주시장 경선 ‘불법 ARS’ 핵심 관계자 출두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ARS 여론조사 사건’의 핵심 관계자가 검찰에 자진출두 했다.

7일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형렬)에 따르면 ‘ARS 여론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임모(44)씨가 이날 오전 11시에 검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임씨가 민주당 광주시장 후

보 선출을 위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앞두고 당원명부를 특정 여론조사기관에 e-메일로 유출하고, ARS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불법 ARS여론조사 사건의 또 다른 핵심 관련자인 모 신문사 실질사주 김모(47)씨는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2010년 국가직/ 지방직 수탁출제에 따른 수험전략/ 채용인원현황/ 바뀌는 시험정보/ 조기합격을 위한 수험대책/ 국가직, 지방직 시험일정 및 거주지 요건정리

공무원 합격설명회

2010년 12월 27일(월) 14:30~ [사전예약접수 중]

참석자 전원 최근 5년간 기출문제증정/ 고급노트증정 종합반교재 5권 20만원상당 무료추첨 10명, 영어/한국사 교재 2권 무료추첨 10명

타 학원 공무원 합격설명회 다 들어보시고, 학원선택은 반드시 비교후 소문들고 선택하십시오! 고시학원의 대세는 "역시" 한빛고시학원입니다.

www.hanbitgosi.co.kr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7·9급 행정직/ 세무직/ 법원직/ 검찰직
교행직/ 농업직/ 기술직/ 소방직/ 교정직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합격은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한빛고시학원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김영편** 입학원 227-8088

개강
1월
3일